

### 보물 제2000호 달성



보물 지정번호 제2000호가 4일 나왔다. 문화재보호법 제정 후 56년 만이다. 국가 보물 지정 번호 제2000호는 단원(檀園) 김홍도의 병풍 그림 '삼공불화도'다.

## 일감창출 수출형 특수차량 개발

#### 도-자동차융합기술원, 자동차 부품기업 8개사 포함 11개 컨소시엄 구성 최종 선정 국비 90억원 확보 협약절차 진행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감창출형 패키지형 기술개발사업에 민간 검증 확장형 플랫폼 기반 다목적 특수차량 개발이 선정되어 지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신규 일감 창출을 위한 국비 90억 원을 확보했다.

공모사업은 자동차융합기술원 주관으로 지역내 자동차부품기업 8개사를 포함하여 총 11개 기업(관)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지난 9월 28일 산업기술평가원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현재 협약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4일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따르면 지역내 참여기관 8개사와 참여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내 부

리기업 등 총 74개사가 연관되어 있는 의미가 큰 공모과제인 만큼 '엔진 기반 차량은 전북지역의 강점인 상용차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조기 사업화하여 연간 200억원 규모의 신규 일감 창출을 통해 현재의 산업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과 전기구동 차량은 지역의 약점인 전기자동차의 핵심기술들을 본 과제를 통해 조기 선점하여 가까운 미래의 일감을 확보한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기술개발을 성공리에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 대상인 엔진기반 차량은 지역내에 위치한 (주)한엑스, (주)대성정밀, (주)대정, (주)모빌텍에서 사출, 프레스, 주단조, 특장부품 모듈 개발을 담당하고, 시작차량 전문기업인

에스티에스(주)에서 최종 시작차량을 제작하고 제작된 차량에 대한 성능평가 및 최적화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담당하며 개발된 차량은 지역내 완성차기업인 타타대우상용차를 통해 국내 및 해외로 수출된다.

전기구동 차량은 지역내에 위치한 (주)세스 등 5개 컨소시엄 기관에서 구동시스템, 배터리시스템, 와이어하네스, 핵심전장부품 개발을 담당하며 차량제작은 에스티에스(주)에서 최종 성능평가 및 최적화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담당한다.

참여기관인 군산 소재 (주)대성정밀 신현태 대표는 지난 4월에 군산지역이 처음으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그 동안 이나연 총리, 각 정당별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등이 군산지역을 방문해 가진 여러 차례의 지역 부품기업 대표들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소모성 예산을 지원해 주기 보다는 '지역내

부품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부품 양산 및 납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물이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첫 단추가 끼워졌으며, 위기지역에서 극복될 수 있는 성공 모델로 만들어 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개발대상 차량은 연간 4천5백대, 6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가지며, 지역내 수요 완성차인 타타대우상용차와 연계하여 연간 내수 500대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수출 200여대를 포함하여 연간 700대, 200억원 규모의 지역내 신규 일감이 만들어지는 개발 아이템이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2019년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14억원(국 90, 민 24)이며, 참여연구원은 주관기관 21명을 포함하여 총 121명이 참여하며, 청년인력 의무채용 15명을 포함하여 사업예산에 반영된 신규인력 채용은 38명이다. /김진성 기자

## '경제 살리기'... 현안 해결 집중

#### 문 대통령, SK하이닉스 준공식 참석·일자리 위원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국내 현안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이날 오전 10대 대기업 제조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면서, 뒤이어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했다.

(관련기사 6면)

이는 평양에서 뉴욕까지 이어진 외교 행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국내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장방문 행보로 대기업 제조 공장 현장을 찾은 데에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면서도 향후 경제 현안을 집중해 돌아선 민심 잡기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라 분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녹록지 않다"고 말하며 미이너스 지표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에서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여전히 고용지표가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경제와 민생 문제가 부각되면서 40%대까지 폭락한 바 있다. 남북관계의 '훈풍'의 한계를 체득한 바 있기에 이번만큼은 경제·민생 분야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준공식에서 "저와 정부는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상생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SK 하이닉스의 지속적인 투자계획을 응원하며, 정부도 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주공장은 올해 말까지 1000명, 2020년까지 2100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할 것"이라며 "협력업체의 신규고용 인원을 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공장 준공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대 그룹 국내 생산시설 중 하나인 SK 하이닉스 청주공장을 찾아 준공식에 참석했다. 또 준공식이 끝난 이후엔 LG·삼성을 포함해 10대 대기업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대기업이라는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행보라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현대자동차 총칭공장, 2월 한화큐셀 공장, 4월 LG그룹 사이언스 파크 준공식, 7월 인도 산성전자 노디나 신공장 준공식, 9월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진수식 등을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 강경화 "北비핵화 과거와 달리 접근, 상응조치 매칭 융통성 필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과거에 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와 상응조치 매칭에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 브리핑에서 가진 내신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비핵화를 완전하게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를 포괄

적으로 고려하면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도 있고 미국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로드맵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북 성과가 중요한 잣대가 되겠지만 비핵화 조치와 또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매칭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융통성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한미간 생각을 같이한다는 것은 아니지

만, 미국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에 대한 등가성의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 이미 많이 얘기가 됐고 다른 상응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 폼페이오의 장관의 방북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융통성 차원에서 미국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시점에 대

해서는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측과의 논의 결과를 좀 더 지켜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강 장관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북한 측에 핵리스트 신고 요구를 미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핵화 핵심인 신고와 검증을 이루는 것은 본질을 빚겨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고와 검증이 비핵화에 분명히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비핵화의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는 결국 미국과 북한의 협의 결과로서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

### 농어촌공 전북본부, 소외계층 '행복 방충망 나누기' 봉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4일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이면에 위치한 다자녀가정과 저소득층의 가정을 방문, '행복 방충망 나누기' 활동을 했다.

'행복 방충망 나누기'는 고령 농어업인의 노후 주택을 방문, 낡은 방충망을 교체하고 주변 환경 정리도 함께하는 활동으로 농어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날 활동으로 수혜 받은 농가에서

는 "방충망 교체로 인해 해충 걱정 없이 아무 때나 환기와 통풍을 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며, 공사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박종만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은 "농어촌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